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세액 감면 발표**

*뉴욕주 전역에 걸쳐 195,0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1억 달러의 세액 감면*

*2023년까지 610만 뉴욕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중산층 세액 감면 가속화*

*2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을 위한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증가하는 비용, 직원 유지에 대한 New York Farm의 고충을 지원하고 새로운 장비를 위한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및 확대 세액 공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 뉴욕 주민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려는 새로운 과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소기업의 총 사업 소득을 줄이기 위해 세액 신고 조정액을 인상함으로써 195,000개의 소기업에 세액 감면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600만 뉴욕 주민을 위한 뉴욕의 기존 중산층 세액 감면에서 12억 달러에 대한 시행을 가속화하고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견뎌야 했던 2백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10억 달러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의 농장과 식품 생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만들고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릴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계속 싸우면서 뉴욕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국민에 투자해야 한다.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 특히 중소기업 소유주, 중산층 가정, 노인 커뮤니티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적 황폐화로 큰 타격을 받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액 부담 감면 외에,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로자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의 회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침체의 깊이에서 오늘날까지, 뉴욕은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했고, 12월 초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을 220,000개의 일자리에 연결시켜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뉴욕주의 지원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제 회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의 실업률은 **6.6%**로 전국 실업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약 **71%**는 여전히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합니다. 7월 현재, 소득은 뉴욕의 13개 주요 직업 분야 중 7개 부문에서 전염병 이전 수준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195,0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1억 달러 구호 제공:** 팬데믹 경기 침체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소규모 기업은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 전역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자격을 확대하고 소기업의 총 소득을 줄이는 세액 신고 조정을 늘려 195,000개의 소기업에 세액 감면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제 수정을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전 순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총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득이 250,000 달러인 미만인 개인 사업체 및 농장 사업체에 대해 5% 공제 수정을 허용하여 매년 5,000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주지사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뉴욕 세입자 총 소득이 최대 150만 달러인 기타 단체를 포함해 모두 약 195,000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줄 것입니다.
- **600만 뉴욕 주민 대상 중산층 세금 감면을 위한 12억 달러 가속화:** 2018년, 뉴욕은 중산층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시작했으며 현행 감면은 2025년까지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소하고 점진적인 혜택을 기다리기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반영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가계 구제에 속도를 내고 2년 전 감세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 시작하고 2023년 과세연도부터 중산층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과세연도에 전면적인 감세를 적용하면 2년간의 감세 기간이 가속화되어 61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10억 달러 재산세 환급 제공:** 뉴욕 주민들이 슈퍼마켓과 펌프에서 인플레이션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여전히 견디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세금을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주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세액 경감 혜택을 줄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소득 가구와 노인은 더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적격 주택 소유주는 2022년 가을에 최대 10억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리고 식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제 수립:** 농장 인건비는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농업 생산 비용 중 하나입니다. 농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기존 인건비 세액 공제를

늘리고 새로운 세액 공제를 만드는 동시에 인력을 보완하고 부족을 해결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됩니다:

- **농장 인건비 유지세 공제 2배 증액:** 농장 소유주와 고용주는 현재 **2024년까지** 적격 농장 직원당 고정 금액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이 인건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에서는 해당 직원당 연간 고정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 **신규 초과 근무 세액 공제 마련:** 뉴욕주는 농부들의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뉴욕주의 모든 규모의 농장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영구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 **투자 세액 공제 인상:** 투자 세액 공제는 과거에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주 농장을 대상으로 기존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농부들이 감소하는 농업 인건비에 대응해 농장을 추가로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